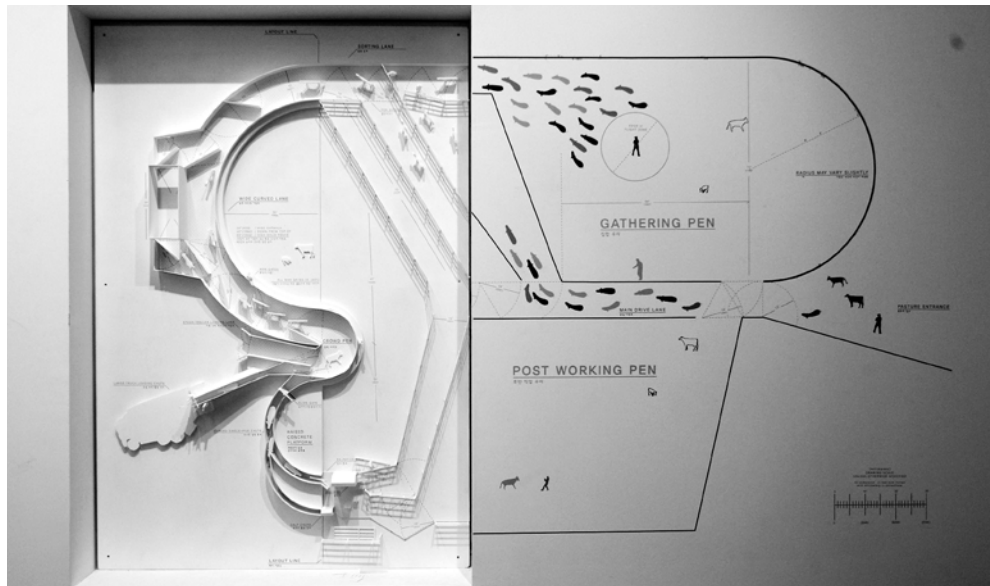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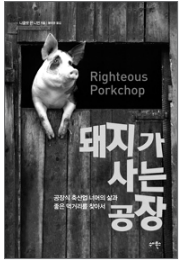


돼지는 그냥 '인간의 식품'일 뿐이었다

'돼지가 사는 공장'

니콜렛 한 니먼 지음

지난해 열린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이색 작품이 출품됐다. 보스턴 출신 미국의 동물학자 탐플 그랜딘이 설계한 도살장 도면이었다. 자폐증을 이겨낸 감동 실화로 영화화되기도 했던 탐플 그랜딘의 작품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줬다. 탐플 그랜딘이 고안한 도살장은 철저히 동물의 입장에서 시작됐다. 소의 움직임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뒤 죽음을 앞둔 소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도살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좁은 통로를 만드는 등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자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들이 죽음을 느끼지 않도록 앞이 보이지 않는 통로를 설계한 탐플 그랜딘의 작품. <광주일보 자료사진>

빈틈이 없을 만큼 가죽을 몰아 넣고 사육하는 탓에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 기본적으로 생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최근 돼지를 학대하며 기르는 축산업체의 모습이나 돼지에 고통을 주며 도축하는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공장식 축산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패스트푸드 업체는 좁은 축사에 가둬 키운 돼지고기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이 소비하는 고기 중 공장식 축산으로 얻어낸 것이 99%에 달한다고 한다. 책에는 저자가 직접 방문한 공장식 축산업 현장을 고스란히 소개하고 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사료와 약품을 먹고 비정상적으로 뽕뽕 불

린 돼지들은 태어난 지 약 5개월이면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이들 돼지들은 바깥 공기는 말아보지도 못하고, 흙도 한 번 밟아 보지 못한 채 좁은 공간에서 '인간의 식품'이 되기 위해 기형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닭도 마찬가지다. 좁은 철창에 갇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어미 닭 대신 인공 부화기가 달걀을 품는다. 또 수평아리들은 태어나자마자 산 채로 분쇄기에 넣어져 '산업 폐기물' 신세가 되기도 한다. 이 밖에 생산도 양식장에 갇혀 육상 동물의 배설물로 만든 사료를 먹으면서 질병과 기생충에 시달리고 있고, 뒷소가 낡은 수송차의 경우 절반 정도는 태어나자마자 도축 돼 송아지 고기로 팔려나간다. <수익북스·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먼곳'

문태준 지음

"새떼가 우르르 내려앉았다/ 키가 작은 나무였다/ 열매를 쪼고 똥을 누기도 했다/ 나무상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나무가/ 누군가 들고 가는 양동이의 물처럼 / 한번 또 한번 출렁했다"-문태준의 시집 '먼곳'에 담긴 시 '아침' 중에서. 문태준처럼 한국어를 정갈하게 표현하는 시인도 드물다. 그가 신간 시집 '먼곳'을 냈다. 농촌 풍경과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서정적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시를 발표해 온 그의 이번 시집에는 불교적 사유가 담겨 있다. 시 '아침'에는 새떼와 나무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끈으로 묶여 있는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준



다. 이런 생명의 교감은 '나무상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이를 지켜보는 화자마저 대자연의 일부로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 장으로 성장한다. 그의 다른 시에서도 불교의 사상은 두드러진다. "냇가에 앉아/ 찢은 몸을 말릴 때 보았던 돌/ 내 사는 예까지 찾아온 돌/ 후일에는 목숨이 깊이 잠길 돌/ 내 다시와 내일을 산다면 /그때는 더 작아졌을 돌" ('돌과의 사귀' 中) 사물이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호흡하는 또 다른 존재라는 깨달음이 담겨 있다. <창비·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환경 파괴·생물군 멸종에 관한 과학적 진단

'여덟마리 새끼 돼지'

스티븐 제이 골드 지음

"다윈 이후 최고의 생물학자", '과학 글쓰기의 계관 시인'으로 꼽히는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골드의 에세이집 '여덟마리 새끼 돼지'가 나왔다. 책은 저자가 27년간 '내추럴 히스토리'에 '이러한 생명관'이라는 타이틀로 연재한 300여편의 과학 에세이를 묶어 출간한 '자연사 에세이 전집' 10권 가운데 여섯번째 권으로 모두 31편의 글이 담겼다. 저자는 인간 중심적 환경 파괴 및 생물군 대량 멸종에 관한 과학적 진단과 근본적 비판을 제기하며 우리 삶과 우리 조상 세대를 간에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저자는 또 물고기 꼬리나 개구리 울음 소리 등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생물학



적 수수께끼를 알려준다. 책은 '반성적 서문'을 시작으로 '멸종의 규모', '척추동물 해부 구조의 기이한 조각들', '사람들의 목소리', '단상들', '인간 본성', '진화의 장대한 패턴' 등 모두 8부로 구성돼 있다. 번역은 과학 전문 번역가 김명남씨가 맡았으며 책 말미에는 과학저술가 김동광씨가 '스티븐 제이 골드의 생애와 업적'이라는 주제로 그의 과학적 유산을 조명하는 글을 실었다. 현암사는 골드 사후 10주기를 맞아 국내 과학 번역가들과 함께 '힘내라, 브론토사우루스', '플라밍고의 미소' 등 골드의 전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2만8000원·현암사>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그 정체는...

'문제는 경제다'

선대인 지음

김미화·우석훈과 함께 '나는 폼사리다'에 출연중이고, 시민모임 '세금혁명당' 대표를 맡고 있는 경제 전문가 선대인이 '문제는 경제다-버리고, 바꾸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펴냈다. 저자는 정확한 수치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1부에서 실업률 3%의 진실, 재벌 독점 등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10가지 위기의 정체를 밝힌다. 이어 2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성장 정책을 고수했을 때 0% 대 성장률, 전



3장은 대안이다. 저자는 재벌 개혁과 세금혁명 등을 통한 경제 민주화, 경제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시스템 개혁 등을 주장하고, 앞으로 10년, 일반 국민들의 마인드 변화를 촉구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명화속에 담긴 인간의 광기·공포

'무서운 그림으로...'

나카노 교코 지음

미술은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때문 그릇에 인간의 폭력성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한다. 광주 출신 미술사가 이연식씨가 나카노 교코의 '무서운 그림으로 인간을 읽다'를 번역했다. 이 책은 명화 속에 담긴 인간의 광기를 보여준다.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운명, 저주, 증오, 광기, 상실, 분노, 죽음 등 7가지 공포를 짚어냈다. 교코의 그림에는 '광기'라는 수식



어를 달았다. 스페인의 격동 시대를 살았던 교코는 시대의 아픔을 느끼는 한 개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왕이 나 귀족의 우아함이 아닌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위작과 도난의 미술사'를 썼다. 서예가 학정 이돈홍씨의 장남이기도 하다. <이룸·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자유는 인류가 쟁취해온 권리가자 기적

'자유역사'

크리스 스튜어트 등 지음

오늘날 인류의 최대 가치 중 하나인 '자유'는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미국의 저술가 크리스 스튜어트와 테드 스튜어트가 함께 쓴 '자유역사'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확대되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발판이 된 세계 역사속 7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창기조건의 뒤를 이은 오고타이 칸이 이끈 몽골 군대는 잠들어 있던 유럽을 흔들어 깨웠다. 에스파냐의 이사벨 1세에게 신대륙 탐험에 대한 후원과 포상을 약속받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두달 뒤 '인도'라고 착각한, 오늘날 미국의 플로리다 주 남쪽의 섬과 쿠바를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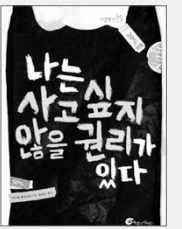
저자들은 이 사건이 '자유'라는 개념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킨 것들이라고 이야기 한다. 책은 그밖에 기독교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아시아와 유대 왕국의 전쟁, 세계사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중심으로 돌려 놓은 문명사적 대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테르미펠레 전투·살라미스 해전,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기독교, 브리튼 전투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자유란 폭정과 압제, 독재와 같은 인간의 본성에 맞서 끊임없이 쟁취해온 권리가자 자유를 향한 험난한 행진이 가로막힐 때마다 수많은 우연의 순간이 만들어낸 기적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예문·1만9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개달음=범분 스님이 경전과 설화, 전설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들려준 책. 스님 스스로 겪었던 짧은 일화나 단상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과 현재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인도한다. 인생과 헛된 삶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행복으로 잡아가지도록 도와준다. 짙막한 일화를 통해 내 삶과 현재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개달음을 준다. <정토출판·1만2000원>

▲과학을 성찰하다=과학기술을 통해 들여다본 20세기와 미래를 이끌어 갈 융합의 지혜를 담았다.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가 지난 1994년 이후 과학 기술과 과학을 가르치면서 쓴 글들을 모았다. 과학 기술이 인류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일화를 통해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현대 과학의 역사를 통해 과학과 예술 등이 만나는 새로운 융합 지식을 다루는 글 등도 곁들였다. <사이언스북스·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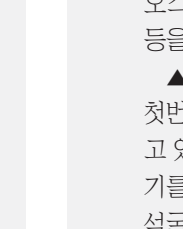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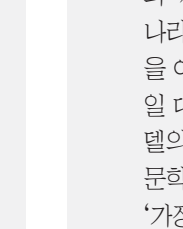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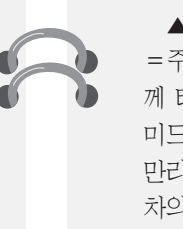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한겨레 신문 기자 김윤영이 전해주는 무모한 작전에 동원된 슬픈 젊은이들의 이야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군부가 선택한 작전이 바로 자살 폭공대 '가미카제다'. 250kg 폭탄을 비행기에 실은 체적 항공모함에 돌격하는 이 작전에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도 많았다. 비행기 조종사를 꿈꾸던 평범한 소년이었다던 안재웅,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서해문집·1만5000원>



▲나는 사고 싶지 않을 권리가 있다=프랑스 작가 미카엘 올리비에가 쓴 자본주의와 소비문화에 대한 냉정한 성찰을 담은 청소년 소설. 초등학교 5학년인 주인공 위고는 교사인 부모를 따라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령 마요트 섬에 잠시 살게 된다. 모든 것이 낙후되고 원주민이 대다수인 그곳에서의 삶은 프랑스에서의 삶과 크게 달랐다. 마요트섬에서 2년 반쯤 살았을 무렵 원주민 여자친구 자이나바가 임신 소식을 전했고, 겁먹은 위고는 엄마 아버지에게 '정리'를 맡긴 채 혼자 프랑스로 돌아가게 된다. <바람의아이들·9000원>

▲근대회화의 혁명=서양근대미술사 권위자인 게오르크 슈미트가 스위스 바젤 방송국에서 강연한 내용을 담았다. 도미에·고흐·고갱·마티스·칸딘스키·세잔·샤갈 등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 각기 정점을 이뤘던 화가 열 사람의 작품 하나씩을 놓고 그 변화의 흐름을 소상히 설명한다. 이를 통해 근대회화의 특질과 변화과정을 생생히 전한다. <창비·1만6000원>

▲시크릿 오브 주얼리=엔틱 주얼리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송경미씨가 '추억을 간직하는 보석 이야기'라는 주제로 엔틱 주얼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보석에 대한 사랑,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화려한 주얼리 사진들이 책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시공사·1만4000원>



▲와! 신나는 세계여행=주인공 카지미어와 함께 터키를 시작으로 파라미드와 나일강의 이집트, 만리장성의 나라 중국,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황소와 싸움을 벌이는 열정의 나라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다. 독일 대표 작가 마를렌 라이델의 작품으로 독일 아동문학상, 뉴욕 타임스 선정 '가장 좋은 10대 그림책', 오스트바이에른 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책내음·9000원>

▲석굴암=천년의 우리 문화 유산 시리즈의 첫번째 권으로 신라 천년의 역사와 숨결을 담고 있는 국보 24호 석굴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당초 석굴사로 불렸던 석굴암을 만든 김대성의 전생에서부터 새로운 탄생, 석불사를 짓게 된 계기와 과정, 석굴암이 훼손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처음주니어·1만원>

▲안녕, 태극기=태극기에 담긴 우주 창조와 심오한 의미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자와 남자가 결

혼해 아기를 낳았 '붉은 거인'과 '파란 거인'이 8배를 낳고, 8배가 힘을 모아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화적 이야기가 담겨 있다. 태극무늬의 음과 양을 붉은 거인과 파란 거인으로 형상화했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나는 한국의 아생마=강원도 흥천의 산에서 아생마로 사는 아생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그림책이다. 농장으로 팔려간 망아지와 엄마말을 찾아 탈출한 아생마 가족을 데리고 산으로 떠나 첫번째 야생 말이 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노리대지·1만1000원>

▲나랑 화장실 갈 사람?=일요일에도 학교에 가고 싶은 정도로 학교를 좋아하지만 화장실 갈 때는 두려운 플러니의 이야기. 책 읽기에 서툴러 늘 긴장하는 요나의 이야기, 수학 공부가 격정인 자크의 이야기 등 세편이 담겨 있다. 7~8세 어린이에게 적합한 책으로 '계집童子, 토마토 싫어', '신기한 인터넷' 등도 함께 나왔다. <사계절·각권 7000원>

어린이 책꽂이